

2020

국방조달시장 진출가이드북

이란



Iranian Defense Market Entry Guidebook
(2nd Revision)

개정 2판

이란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2020. 10.

■ 요약 문

- 해외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증진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국방 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8월 6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UAE, 오만, 이라크)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을 신규 작성하였으며, 기존에 발간하였던 12개국(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사우디, 이란, 케냐, 보츠와나, 멕시코, 알제리, 폴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의 가이드북 또한 발간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였으며 국가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란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은 2017년 11월 첫 출간 이후 2019년 1차 개정되었으며,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한 2차 개정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각 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 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국가 개요나 방위산업 시장 전반에 관한 정보보다는 해당국의 국방조달제도 및 관련 조직, 입찰 절차 및 전자입찰시스템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였습니다.
- 이란은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 증진에 노력을 기하여 왔습니다. 이란의 공격용 첨단군사장비 획득을 억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가 2020년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란의 러시아, 중국과의 첨단 재래식 무기 조달 및 관련 기술이전, 공동생산 등 협력이 예상되는 사안이 있어, 본 개정판의 [Chapter 1. 국방조달제도]에서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 사우디의 경우 국방조달 절차는 일반 정부조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방부 및 산하 공기업 내부 규정 및 절차를 통해 조달을 진행합니다. '19년 공개한 1차 개정본 내용 중 입찰참여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일반 정부조달과 국방조달 분야로 분리하여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에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자료로 현지 시장진출 환경과 더불어 방위사업청 수출통제 및 허가 절차를 소개하여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외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은 외교부/KOTRA 국가별 개황, IHS Jane's, SIPRI, Forecast International, Global Data, 현지 법률 및 관련기관 웹사이트 공개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 목 차 례

Chapter 1. 국방조달제도	1
1-1. 조달정책	3
1-2. 조달법규	4
Chapter 2. 국방조달체계	7
2-1. 관련 조직	9
2-2. 의사 결정 절차	10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	15
3-1. 입찰 참여 절차	17
3-2. 전자입찰시스템	17
Chapter 4. FAQ	19
[부 록]	
1. 시장 진출 환경	27
2. 한국과 이란의 국방조달체계 비교	31
3. 수출 통제 및 허가 절차	33

표 차례

[표 1] 이란 주요 현지 방산기업	4
[표 2] 이란의 정부조달 건을 확인 가능한 온라인 입찰정보체계	18
[표 3] 2016~2025년 예상 국방예산 및 성장률	28
[표 4] 2018~2025년 분야별 국방비 지출 비중 및 획득비 증감률 예측	29
[표 5] 한국과 이란의 국방조달 제도 및 법률적 측면 비교	31
[표 6] 한국과 이란의 국방조달 조직 및 운영 측면 비교	32
[표 7]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33
[표 8] 수출허가 제출 서류 목록	34

그림 차례

[그림 1] 이란의 정부조달 표준 절차	10
[그림 2] 2016~2025년 예상 국방예산 및 성장률	29
[그림 3] 2010-2019년 간 이란 방산 수입 상대국	30
[그림 4]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33
[그림 5] 수출 통제/허가 처리 절차	34
[그림 6]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상세 절차 및 수행 기관	35
[그림 7]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36

Chapter 1

국방 조달 제도

1. 조달 정책
2. 조달 법규

Chapter 1. 국방조달제도

1. 조달 정책

가. 방산정책 및 전략¹⁾

- 이란은 국방 부문에서 소형 무기와 탄약, 장갑차, 잠수함, 미사일, 군용 전자제품, 항공기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현지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란 기업들의 생산 역량에 관하여선 알려진 정보가 적으나, 군 당국이 신규 무기체계 조달 또는 현대화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는 빈도를 통해 미루어 보면 이란은 자국의 방위산업 육성과 대외 의존도 축소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국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무기체계 설계 및 생산 능력 개발을 저해하여 왔다. 또한, 국가 경제 악화로 인해 국방 연구개발 투자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란의 기술자들은 혁명수비대가 확보한 국외 장비에 대하여 역 엔지니어링을 통한 기술 확보에는 아주 뛰어나지만, 이렇게 재생산한 이란의 복제품은 기존 체계에 비하여 정교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이란의 공격용 첨단군사장비 획득을 억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가 2020년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록 서방 공급기업들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는 유지될 것이지만, UN의 제한조치의 완화를 통해 이란은 향후 몇 년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로부터 첨단 재래식 무기를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계약을 통해 현지 기업들이 방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1) Iran Defence & Security Report (Includes 10-year forecasts to 2029), FitchSolutions (2020)

○ 주요 현지 방산기업²⁾

[표 1] 이란 주요 현지 방산기업

기업명	분야
Defense Industries Organization	국영 방산 연합기업; 자회사를 통해 소화기, 탄약, 곡사포, 장갑차(APC), 미사일, 함정 등을 생산
Aerospace Industries Organization	DIO 자회사; 지대공·지대지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생산
Armament Industries Group	DIO 자회사; 소화기 생산
Cruise Missile Industry Group	DIO 자회사; 해상용 미사일, 순항 미사일 생산
Marine Industries Group	DIO 자회사; 수상함 및 기타 함정 생산
Vehicle Industries Group	DIO 자회사; 장갑차 생산
Iran Aviation Industries Organization	항공분야 국영 방산 연합기업; 자회사를 통해 민간·군사 항공기 생산
HESA	IAIO 자회사; 고정익 항공기 및 무인기(UAV) 생산
Iran Helicopter Support and Renewal Company (IHSRC)	IAIO subsidiary; 헬리콥터 생산
Iran Electronics Industries	전자 분야 국영 방산 연합기업; 자회사를 통해 레이더 미사일 생산

2. 조달 법규³⁾

가. 공공조달 법령 및 운영체제

- 이란 조달법(Iran Tender's Law)은 2004년 4월 14일에 제정, 2005년 1월에 승인되었으며, 이란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Finance)에서 관할하고 있음

2) Forecast International - Iran (Major Companies)

3) 이란 정부조달 시스템 - KOTRA 글로벌원도우, KOTRA 테헤란 무역관

- 이란의 공공조달은 이란 경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면서, 지난 2005년 1월, 공공조달 및 입찰 절차를 관할하는 다수의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이 통합된 ‘조달법령’이 입법부인 국회(Majlis)와 국정조정위원회(Expediency Council)⁴⁾의 승인을 받아 통과하였음
- 전자조달과 관련된 법령은 Cabinet Resolution No. 110,009/d of 44,897 (2010. 08.10)과 Regulation for Iran e-Procurement system No. 165,389/T 46,849K (2011.11.19)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에 근거, 허락된 디지털서명은 전자입찰 및 경매에 적용됨
- 이란 연간 예산을 할당받는 모든 조직체는 입찰 시 이란 조달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조직체는 다음과 같음.
 - 정부 각 부처, 공공단체, 기관, 기업
 - 정부 제휴 수익성 협회, 공공 금융 기관 및 은행, 공공 보험사, 비정부 공공 기관 및 재단(정부 예산 사용 시), 공공 기관, 이슬람 혁명 조직 및 기관, 헌법수호위원회
 - 기타 국가 지분 보유 기업과 이와 제휴 맺은 기업은 자체 법규와 상관없이 이란 국내 조달법을 준수해야 함.
 - Ministry Jihad Agriculture
 -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 National Iranian Gas Company
 - National Iranian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
 - Iranian Industries Renovation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 Ports and Shipping Organization of Islamic Republic of Iran
 - Iranian Mining Industries and Mines Renovation and Development Organizations
 - 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나. 국방조달 입찰제도

- 이란 군대(Armed Forces)의 경우 조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을 준용함

4) 국정조정위원회(Expediency Council)는 1988.2월 설치된 기관으로, 최고지도자 보좌, 장기국가정책 입안,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 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 담당

Chapter 2

국방 조달 체계

1. 관련 조직
2. 의사 결정 절차

Chapter 2. 국방 조달 체계

1. 관련 조직⁵⁾

가. 국방조달 관련 조직

- 이란에서는 분산조달방식에 따라 개별부처에서 조달관리를 진행함. 이란 국방부의 경우 국방부 자체 또는 산하 공기업들을 통해 국방물자 제조 및 조달 등을 실행하고 있음
 - 이란의 군대는 이란 정규군대와 혁명수비대 등 2가지로 구분되는데, 정규군대는 대부분 국방부 및 산하 공기업들을 통해 조달이 진행되는 반면, 혁명수비대는 그 산하에 공기업들을 두고 독립적으로 조달을 운영함 (즉, 혁명수비대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공기업들을 통해 조달이 이루어짐)
- 이란에서는 안보 및 국방 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국가안보위원회 (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SNSC)를 두고 있어, SNSC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조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SNSC는 이란 헌법 제17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입법/사법/행정 장관, 각 군 최고명령위원회(Supreme Command Council)의 장, 기획 및 예산 조직의 사무국장, 외교부/내무부/정보부 장관, 하원의장, 이란 군대 및 혁명수비대의 통솔권자, 이란의 현지도자인 Khamenei에 지명된 2인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됨
 - SNSC의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SNSC의 결정은 최고 지도자에 의해 비준된 후에 집행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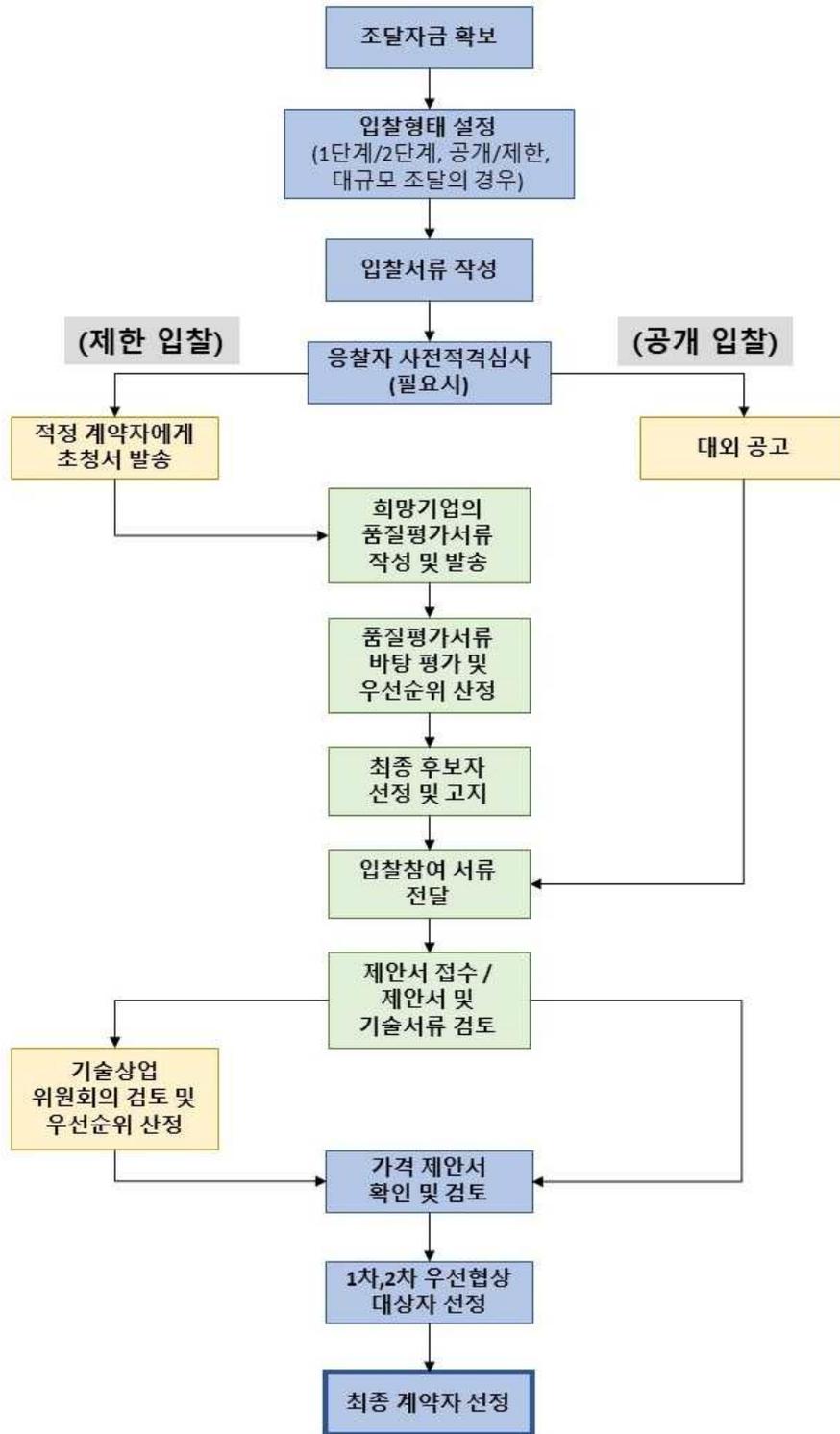
- 최고 지도자가 내린 일반정책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국가 안보 및 보안 정책을 결정함
- 일반적 국가안보 및 보안정책과 관련있는 정치, 정보,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을 조정함
- 국가의 내외부 위협에 직면할 때 국가의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동원함

5) 이란 정부조달 시스템 - KOTRA 글로벌원도우, KOTRA 테헤란 무역관

2. 의사결정 절차⁶⁾

- 다음은, 이란의 정부조달 표준 절차로, 이란 군대(Armed Forces)의 경우 조달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절차 준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림 1] 이란의 정부조달 표준 절차



6) 이란 정부조달 시스템 - KOTRA 글로벌원도우, KOTRA 테헤란 무역관

가. 입찰 주최 과정

- 주최 예산 준비 : 주체 예산 및 계약 이행 의무 지연에 관한 보상은 주관기관에 의해 입찰조건 문서로 명시, 보장되어야 함
- 대형 조달을 위한 입찰 종류 채택(단일 혹은 2단계, 공개 혹은 제한)
- 입찰 관련 문서 준비
 - 모든 입찰 관련 문서는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함.
 - 입찰 문서 구성
 - 주관기관의 조직명과 주소
 - 보증금 유형과 정도
 - 문서 수령, 제출 및 개찰을 위한 장소, 시간 및 기한
 - 선급금 및 계약이행보증
 - 입찰 유효기간
 - 위임 사항, 기술/가격 명세서, 표준, 유형,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수량
 - 시행 계획 혹은 상품 공급 일정
 - 적격심사 방식 및 기준
 - 입찰 준비 방법, 사본 수량 및 제출 기한
 - 합의 내용, 계약 조건의 일반사항과 특이사항 및 부록을 포함한 계약서
 - 회의 및 설명에 관한 회의록
 -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문서
- 입찰자 적격확인(필요시) 절차
 - 적격확인 기준 및 관련 중요사항 지정
 - 적격확인 자격 문서 준비
 - 입찰자의 적격확인 서류 접수, 완성 및 제출
 - 입찰자의 등급 및 순위 결정을 위한 적격확인 서류 심사
 - 등급 및 순위(간단한 리스트)와 함께 자격을 갖춘 입찰자의 명단을 고객에게 통지
 - 입찰자의 적격확인 문서화
 - 고려사항
 - 서비스 및 상품의 품질 보장
 - 관련된 분야 보유정보 및 경험
 - 평판
 - 노동허가증 혹은 자격 증명서(필요시)
 - 낙찰 시 이행을 위한 입찰자의 재정 상태(필요시)

○ 입찰 초청장 발행

- 공개 입찰에 대한 초청 공고는 주관기관 재량이며 2~3회 걸쳐 구독수가 높은 국영 혹은 지방 신문사에 게재
- 주관기관은 위에 언급된 방법 이외 다른 매체, 통신 혹은 정보 네트워크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음.
- 국제 입찰 혹은 해외 금융이 필요할 경우 관련 허가 필요하며 관련 공고 또한 다수의 판매 부수를 보유한 신문을 통해 게시되어야 함. 입찰 관련 국제 잡지 혹은 신문 및 국내 영자 신문을 통해서도 최소 1회 게재 필요
- 입찰 초청장 구성
 - 주관기관의 조직명 및 주소
 -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 양 및 품질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보증금 유형 및 규모
 - 문서 수령과 제출 및 개찰을 위한 장소, 시간 및 기한
 - 예상 금액 및 항목 (예산액은 추정 가능 시 포함 항목과 함께 작성)

○ 입찰 평가

○ 입찰자 결정과 수령 계약

나. 입찰 준비 및 제출

- 입찰자는 관련 문서를 수령 혹은 구매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주관기관에 제출
 - 문서 및 입찰서 수령 후 작성
 - 입찰 공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한 이내 주관기관에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 확인증 수령
- 국내 입찰의 문서 접수 기한은 문서 판매 마감 이후 10일 이상이어야 함 (국제 입찰은 1개월 이상)

다. 개찰

- 입찰서는 정해진 장소 및 일자에 공개되어야 함
- 개찰 순서
 - 문서 수령인(입찰자), 참석자 및 회의 참여자 명단 준비
 - 밀봉된 입찰서(봉투A) 개봉

- 기술/가격 제안서 개봉
- 요청 서류 기입 여부, 입찰자 신뢰 가능 여부,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격 제안서 개봉.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일 입찰단계에서는 탈락 처리됨.
- 2단계 입찰 시 기술/가격 제안서를 기술/상업 위원회에게 제출
- 입찰위원회가 개찰 회의록을 작성 및 서명
- 수령인에게 반송하기 위해 탈락된 가격 제안서와 입찰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2단계 입찰의 경우, 가격 제안서 개봉에 관한 시간 및 장소는 개찰 회의에서 발표
 - 해당 기간은 입찰 유효기간까지 한 차례 연장 가능
 - 연장 시 가격 제안서는 주관기관이 밀봉하여 보관
 - 단일입찰의 경우 가격 제안서를 즉시 개봉해 최종 낙찰자 발표를 해야 함.
- 주관기관은 입찰자 혹은 그들의 대리인을 가격 제안서 개찰에 참석하도록 초청해야 함.

라. 입찰 기술/가격 심사

- 2단계 입찰에서 주관기관은 입찰 문서에 제시한 기준과 방법으로 입찰자의 사전 자격 확인 및 입찰의 기술/가격 심사를 수행
- 입찰의 기술/가격 검토가 필요할 경우, 검토 결과는 입찰위원회가 명시한 기간 내 다음 위원회 회의에 전해져야 함.
 - 기술/가격 보고서에 따라 기술적/가격적 조건을 갖춘 입찰자의 가격 제안서 공개
- 기술/가격 평가는 가격 제안서 개봉 이전에만 가능
- 기술/가격이 적합하지 않은 입찰자의 가격 제안서는 개봉되지 않은 채 반송

라. 가격 평가 및 승자 결정

- 가격 평가 진행 후 최저 가격 입찰자가 낙찰됨.
 - 2순위 입찰자와 낙찰자의 입찰가 차액이 입찰 보증금보다 적을 시 2순위 입찰자 발표
 - 가격 평가 방식은 가격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입찰 문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함.
- 가격 제안서 공개 후 가격 및 이행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찰 위원회는 이를 기술/상업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기술/상업 위원회는 2주 이내 평가 결과를 입찰 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함.

- 가격 제안서 공개 후, 낙찰자와 2순위 입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주관기관이 보관하며, 나머지 입찰자들의 입찰 보증금은 반환됨.
- 국제 입찰에서는 국내 입찰자가 외국인 입찰자에 우선됨.
 - 국내 입찰자의 우선권은 입찰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 경제 위원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입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마. 제한 입찰(공고 없는 입찰)

- 정부 공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입찰자 목록 존재
- 적격 입찰자 목록은 최대 2년 이전 준비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

1. 입찰참여절차
2. 전자입찰시스템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

1. 입찰 참여 절차

가. 국방조달 입찰 절차

- 이란의 정부조달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조달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함.
 - 입찰 공고
 - 입찰서 제출 및 접수, 개찰
 - 입찰서 평가 및 낙찰자 통보
 - 계약서 체결
 - 계약 사후관리
- 하지만 이란 국군 조달은 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정부조달 수단 중 ‘제한 입찰’ 방식 또한 존재하므로, 이란의 국방분야 조달이 위 절차를 따를 가능성은 낮다.

2. 전자 입찰 시스템

가. 공공조달 온라인 체계

- 산업광물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산하기관 중 전자상거래 개발센터(E-commerce Development Center)에서 일반물자 조달을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인 SATED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음
 - 테헤란을 포함하여 각 주마다 31개 지역센터가 존재하는데, 각 지역센터에서는 정부기관 및 민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SATED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명 (User name)과 패스워드 제공 및 승인하는 역할을 함
- 이란의 전자조달의 이점은 행정비용 감소, 주문 완성 순환 시간 단축, 재고수준을 낮추고, 상품 가격을 낮추며, 조직 차원에서 기술적 협을 증가시키고 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계획 세우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의 잠재적인 혜택은 거래 가격을 낮추고, 보다 신속한 주문을 가능케 하며, 조달 협력업체(Vendor) 선택의 폭이 넓으며, 일반화되고, 더욱 효율적인 조달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는 점임
 - 이에 SETAD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업체(1차 계약자)가 아웃소싱(2차 계약)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까지 추진 중임

- 이란 내 공공 경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달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란의 경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거래의 도구로서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전자조달 시스템은 관련법과 법령에 따라 기존에 분산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시스템화 한 것으로 수요기관의 수행하는 모든 거래를 가능케 함
- 이란은 자국의 인프라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조달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국가분류시스템을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SETAD에서 현재 모든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공급자는 SETAD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분류코드를 획득하여야 함

[표 2] 이란의 정부조달 건을 확인 가능한 온라인 입찰정보체계

체계명	사이트	특징
전자조달포털	https://eproc.setadiran.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존재 • 입찰공고접근불가 (로그인필요) • 낙찰공고 확인불가
국립이란 입찰데이터센터	http://iets.mporg.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입찰공고만 있음
컨설팅업체	http://www.irantend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정보 제공 (유료서비스)

나. 국방조달 온라인 체계

- 국방 분야와 관련한 입찰 건은 온라인 체계 상 게시를 포함한, 정부조달법상 일반 절차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국방부 및 산하 공기업 내부 규정 및 절차를 통해 조달을 진행한다.
-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조달 건과 관련한 사전 정보 획득이 매우 중요함

Chapter 4

F A Q

Chapter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란 국방조달시장 진출 시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 이란 조달법 상 현지참여가 되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국제입찰 시에도 현지 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현지화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현지법인보다는 기술이전이 담보되는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무기체계에 대한 진출가능성은 아직 조건부식 제재 해제, 미국 트럼프 정권의 북한 제재 등의 영향을 고려, 조금더 관망을 하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한 후 신중한 진출이 필요하므로, 전력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Q2. 그렇다면, 입찰참여를 위해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진출을 고려하려면 입찰참여자격을 얻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성공적인 진출사례에서도 현지법인으로 진출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 다만, 정부부처 산하에 수많은 공기업이 존재하므로(혁명수비대 산하에도 공기업 다수 존재), 각 공기업의 벤더등록을 하거나, 정부부처의 사업을 위탁받은 EPC 업체의 벤더로 등록하여 간접적 진출이 가능합니다.
- 특히, EPC 업체를 통해 벤더등록을 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지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3. 이란 내 Sovereign Guarantee(지급보증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 Sovereign guarantee는 공공기업, 국유기업,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발급합니다.
- 국유기업 참여 프로젝트는 산업 및 해당분야 내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합니다. 다만 HEC (High Economic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민간영역 프로젝트도 가능한데, 거래은행은 발주처가 대출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경제재정부에 서한을 보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이란 조달법상 프로젝트의 50%는 이란 산 사용해야 하는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하나요?

- 이란 법규에 따르면 이란 내 제조, 조달 가능한 품목에 대해 수입불가 현지화 비율은 최대 50%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 주관 프로젝트의 경우, HEC (High Economic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HEC가 현지화 비율을 변동할 수 있습니다(50%는 고정이 아니라 유연성이 있음).
- 단, 협상, 해당 부처 입장, 계약의 성격, 서비스의 상태나 현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Q5. 이란 국방조달시장에서 한국 방산기업이 참여가능한 유망품목은 무엇인가요?

- 무기체계보다는 일반물자(전력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무기체계에 대한 진출가능성은 아직 조건부식 제재 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제재 등의 영향을 고려,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한 후 신중한 진출이 필요하므로, 전력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우리나라의 對이란 수출품목 및 정부로부터 입찰공고되는 품목(이중품목)을 종합하고, 수입금지품목 및 전략물자 통제품목 등을 비교·분석하여 도출된 유망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전력지원체계	▪ (획득소요 예측) 차량 및 부품, 전자제품 및 부품
	▪ (유망품목) 차량 및 부품, 보안분야 등 정보통신기술, 전자재

- 유망품목 중 차량류 또는 통신장비는 이란 내 제조된 품목이어야 한다는 수입 제한품목에 해당하는 바, 부품을 수출해 이란 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Q6. 이란에 진출한 외국 방산업체들은 어떤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각 사업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국방조달과 관련한 해외 방산업체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제한된 진출환경으로 인해 뚜렷한 성공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다만,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우회 수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Case 1 : 미국(공급국가)에 거주하는 이란인이 설립한 무역회사를 통해 주문, UAE 등 항만을 통해 선적하여 이란으로 전환하는 경우
 - Case 2 : 이란 내 무역회사가 아일랜드 무역회사를 통해 주문의뢰, 아일랜드 업체가 미국정부에 주문, UAE 및 말레이시아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선적, 이란으로 전환하는 경우

Q7. 이란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2016년 1월 이뤄진 JCPOA의 경제제재 해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2015년 7월 UN 상임이사국 5 개국과 독일, 이란이 합의한 협약으로서 2016년 1월 16일 발효되었습니다.
- JCPOA는 이란의 핵사찰을 조건으로 대이란 경제제재 및 재래식 무기거래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이란과의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동시 일부 자본거래도 허용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Secondary Sanction(제3국 제재)만 해제되고 Primary Sanction(미국인 제재)은 유지되어 이란 관련 거래 시 미화 달러, 미국 금융기관 및 미국인이 개입되는 거래는 여전히 제재 대상이며 제재 위반 시 대금지급·송금 불가, 미국 시장 진출 또는 USD 거래금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분, 거래중지 등이 따릅니다.
- Snap back(제재복원) 발효 시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대금결제 또는 채권회수, 인력 및 설비철수 등 제반 사항 완료해야 합니다.



부록

1. 시장진출환경
2. 한국과 이란의 국방조달체계 비교
3. 수출 통제 및 허가 절차

■ 부 록

1. 시장 진출 환경

가. 무기체계 획득전망⁷⁾

- [방공시스템] 이란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 개발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S-300PMU1/2 시스템 도입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러시아와 체결하였으며, 관련 조달은 '15년 미국과의 핵협정 체결에 따라 재추진되었음. 관련 시스템은 2018년 3월부터 도입이 완료되었음.
- [다목적 전투기] 이란 공군은 현재 1970년대 도입한 미국제 노후 전투기 및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서 나포한 항공기를 운용 중으로, 이는 GCC 내 주변국의 전력과 극명한 대비를 보임. 대이란 경제제재가 완화된다면, 이란 공군은 관련 조달을 적극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청두항공기(CAC) J-10B 기종과 러시아 Sukhoi Su-30 플랭커 전투기 조달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함.
- [초계함 및 잠수함] 사우디, UAE, 이스라엘이 해상 안보에 지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확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함대를 확충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중, 이란은 새로운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해상능력 제고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향후에는 잠수함 및 대잠 미사일 획득에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함.
- [감시정찰 및 사이버전] 이란은 향후 10년 간 감시정찰 장비에 지속 투자하여 사회불안, 정치적 불안, 테러 및 국내외 분리주의 집단에 대한 억지 대책을 마련해갈 것으로 보임. 또한, 인터넷 보급과 상호연결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 보안 강화 소요 또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의 사이버 공격을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는 등, 이란의 사이버전 능력은 서방 국가들에게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7) Iran Defence & Security Report (Includes 10-year forecasts to 2029), FitchSolutions (2020)

나. 예산 전망⁸⁾

- 이란의 국방지출은 ‘10년 UN 안보리의 금수조치 결의안과 ‘12년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이후 ’15년까지 약 20% 급락하였음. 미국의 제재 일부 완화가 있던 2015년 이후 다소 증가세를 보였으나, ‘18년 이후 이란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국방예산은 지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란 국방예산의 연평균성장률 (CAGR)은 -9.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07년 이후 국외 도입한 무기 체계는 러시아의 S-400 방공시스템 4기(2016년 도입) 이외에 미미한 수준이다.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 이란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 주요 무기체계에 대하여 자국 생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체계의 성능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표 3] 2016~2025년 예상 국방예산 및 성장률

Year	국방예산 (USD billions)	성장률 (%)	연평균성장률 (CAGR, %)
2016	6.41	3.6	-5.1%
2017	7.50	17.0	
2018	6.73	-10.3	
2019	5.20	-22.7	
2020	5.20	0.0	
2021	4.02	-22.7	-10.24%
2022	3.51	-12.7	
2023	3.05	-13.1	
2024	2.80	-8.2	
2025	2.61	-6.8	

8) Military spending and arms imports by Iran, Saudi Arabia, Qatar, and the UAE, SIPRI Fact Sheet (2019.05)



[그림 2] 2016~2025년 예상 국방예산 및 성장률

- [표 6]은 총 국방예산 중 국방비 지출을 예측한 것으로 이 중 국방획득을 위한 지출은 2018년 7.7억 달러를 기준으로 매년 감소가 예상되며, 2018년~2025년 연평균성장률(CAGR⁹⁾)은 -9.07%로 예상됨
- 아랍에미리트의 획득예산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이란은 예멘 전쟁, 미-이란 견제구도 등 중동 역내 다양한 긴장 상황에 적극 관여하고 있어, 군사 소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2018~2025년 분야별 국방비 지출 비중 및 획득비 증감률 예측 (단위 :%)¹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획득비 증감률	-11.96	-18.82	7.64	-18.04	-8.82	-11.39	-6.59	-4.94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Procurement	11.49	12.07	12.99	13.77	14.39	14.66	14.92	15.19
Military Personnel	61.00	60.57	59.32	58.46	57.84	57.52	57.20	56.88
O&M	21.60	21.50	21.73	21.78	21.78	21.82	21.87	21.91
RDT&E	1.95	1.93	1.96	1.97	1.97	1.97	1.98	1.98
Other	3.96	3.93	3.99	4.01	4.02	4.02	4.03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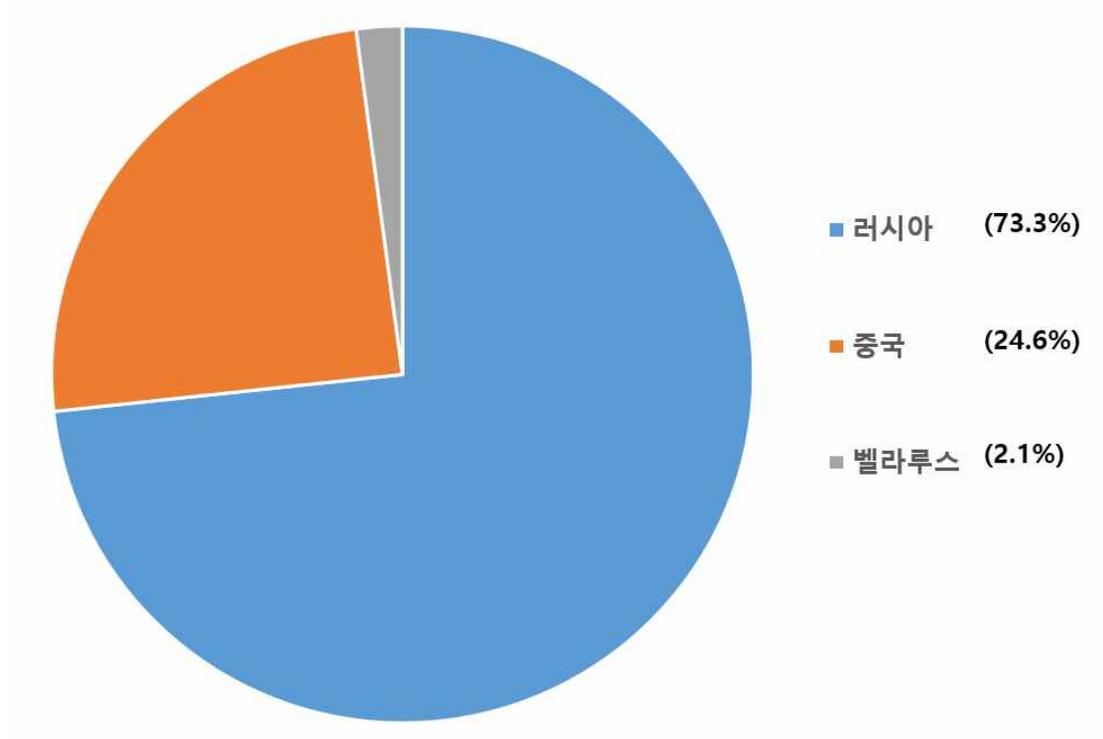
9) 연평균복합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성장률을 환산한 것

$$\text{공식) } CAGR(t_0, t_n) = \left(\frac{V(t_n)}{V(t_0)} \right)^{\frac{1}{t_n - t_0}} - 1 \quad (* V(t_0) = \text{시작값}, V(t_n) = \text{끝값}, t_n - t_0 = \text{년수})$$

10) Jane's Defense Budget 자료를 재구성

다. 타국의 시장진출현황¹¹⁾

- 2010년 이후 이란은 서방국의 무기판매금지 조치와 경제제재로 인해 국외 무기 수입 규모가 급감하였음. 2010-2019년 기간 동안 이란의 대외 수입 중 러시아가 약 73%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최근 이루어진 S-400 방공무기체계 획득에 해당함.



[그림 3] 2010-2019년 간 이란 방산 수입 상대국

11)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www.sipri.org)

2. 한국과 이란의 국방조달체계 비교

가. 법규 및 제도적 측면

○ 이란의 국방조달 절차는 한국과 비교할 때 체계화 및 전산화가 매우 미비한 상태임

[표 5] 한국과 이란의 국방조달 제도 및 법률적 측면 비교

구분	이 란	한 국	이란 특이사항
조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공물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조달 국방조달은 직접조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공 물자는 공개 경쟁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조달] 공공조달 계약법령에서 제외
조달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계약법령 있음 [국방조달] 공공조달 법령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조달/국방조달 정부 계약법령 있음 국방부/방사청 자체 국방조달 절차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조달관련 국방부·군 내부규정 미공개
참가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법 상 현지참여가 되어야 입찰참여 가능 국제입찰시에도 현지 기업 우대 (현지화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국민과 한국 기업에 제한 두지 않음 소수 전략체계 도입의 경우 GtoG 협상이 선행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화 우선시
입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자가 입찰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 다만, 무기 및 군사 장비의 경우 국방부·군별 자체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자가 입찰 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 부족으로 현지 에이전트와의 협업이 바람직
입찰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서 접수 기한 (국내 10일, 국제 1개월) 무기체계류 입찰기간은 불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조달] 통상 2개월 이내 계약 체결 [국방조달] 계약 체결까지 1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 무기체계류 입찰기간이 불명확하여 사업정보 확보 필요
절충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충교역 관련 규정 미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충교역 50% 적용 가치축적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충교역 요건 미비
방산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제재로 국내 방산 육성 적극지원 자국 방산업체 능력은 선진국 체계 복제품 생산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안보 및 방산 육성을 위해 지상·해상·항공 산업 영역에 걸쳐 폭넓은 개발 생산 능력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산능력 미비하나 비대칭전력 생산 투자 추진

나. 조직 및 운영 측면

- 이란은 한국과 같이 국방조달을 위한 단일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방부, 각군 등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운영함
- 이란은 모든 입찰절차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음

[표 6] 한국과 이란의 국방조달 조직 및 운영 측면 비교

구분	이 란	한 국	이란 특이사항
국방 통합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조달 조직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조달을 위한 전담조직 있음(방위사업청 DAPA) 	-
조달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SETAD 전자조달포털 운영 • [국방조달] 조직과 업무정보 미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청 조직도 및 업무별 연락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업무별 연락처 확인 편리
전자 조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SETAD 전자조달포털 운영 • 국방분야는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조달] '국방전자조달'(d2b)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국방조달 입찰 절차를 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
입찰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류는 소요군과 직접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 입찰공고는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무기체계 입찰공고 확인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는 개별 초청장(제한입찰) 또는 신문(공개입찰)을 통해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장비 및 물자류 입찰공고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일반장비 및 물자류 입찰공고 확인 가능하나 정보가 제한됨
현지 중개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조달정보 획득 등을 위해 에이전트 역할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역 역할은 인정하나 사업의 성격/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되고 있음 	-
입찰 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대상기관과 직접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전자입찰, 낙찰자 확인, 대금지불 청구 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통지로 공개정보 확인 제한
주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군(국군 및 혁명수비대) 및 산하 공기업과 벤더등록 등을 통한 협력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군 - 합참 - 국방부 - 방위사업청 담당 권한/업무별로 분권적 기능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국면에서 주요체계 자체생산, 첨단방어체계 국외(러중) 조달 추진

3. 방산수출 통제 및 허가 절차¹²⁾¹³⁾

가. 방산수출 통제/허가 개념 및 관련 법규

- [수출통제/허가의 개념] 국제평화, 국가안보, 기술보호 등을 위해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와 관련한 기술의 수출, 경유, 환적, 중개 등의 행위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수출통제/허가 대상품목]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지정한 방산물자, 전략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

[표 기]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 고시
방산물자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 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일반 +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관리규정 1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 방산수출 통제/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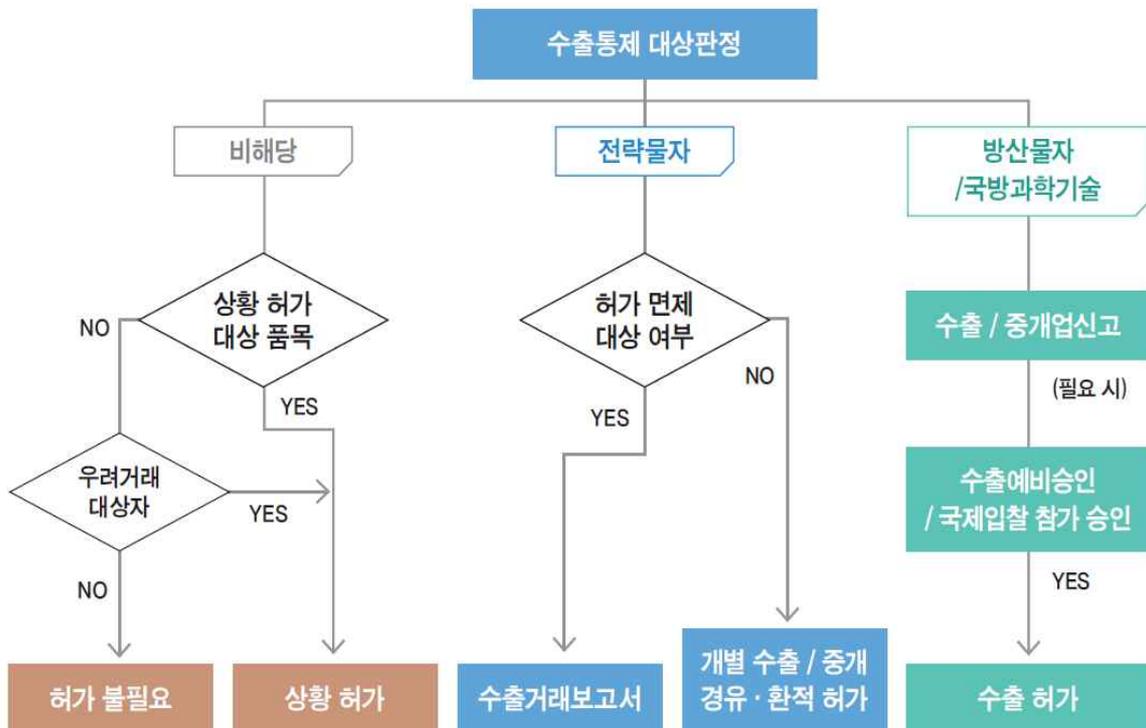
[그림 4]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12) 방위사업청,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13)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나. 방산수출 통제/허가 절차

- 방산수출 허가 절차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로 구분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됨
- 수출 통제/허가 심사 기준은 수출 허가 대상(방산물자, 군용전략물자 등) 여부,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저해 및 군사외교적 민감성, 수입국의 기술수준 및 품목/기술의 유출가능성, 수입자/최종사용자/사용목적의 신뢰성, UN등 국제체제 제재 대상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그림 5] 수출 통제/허가 처리 절차

- [수출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표 8] 수출허가 제출 서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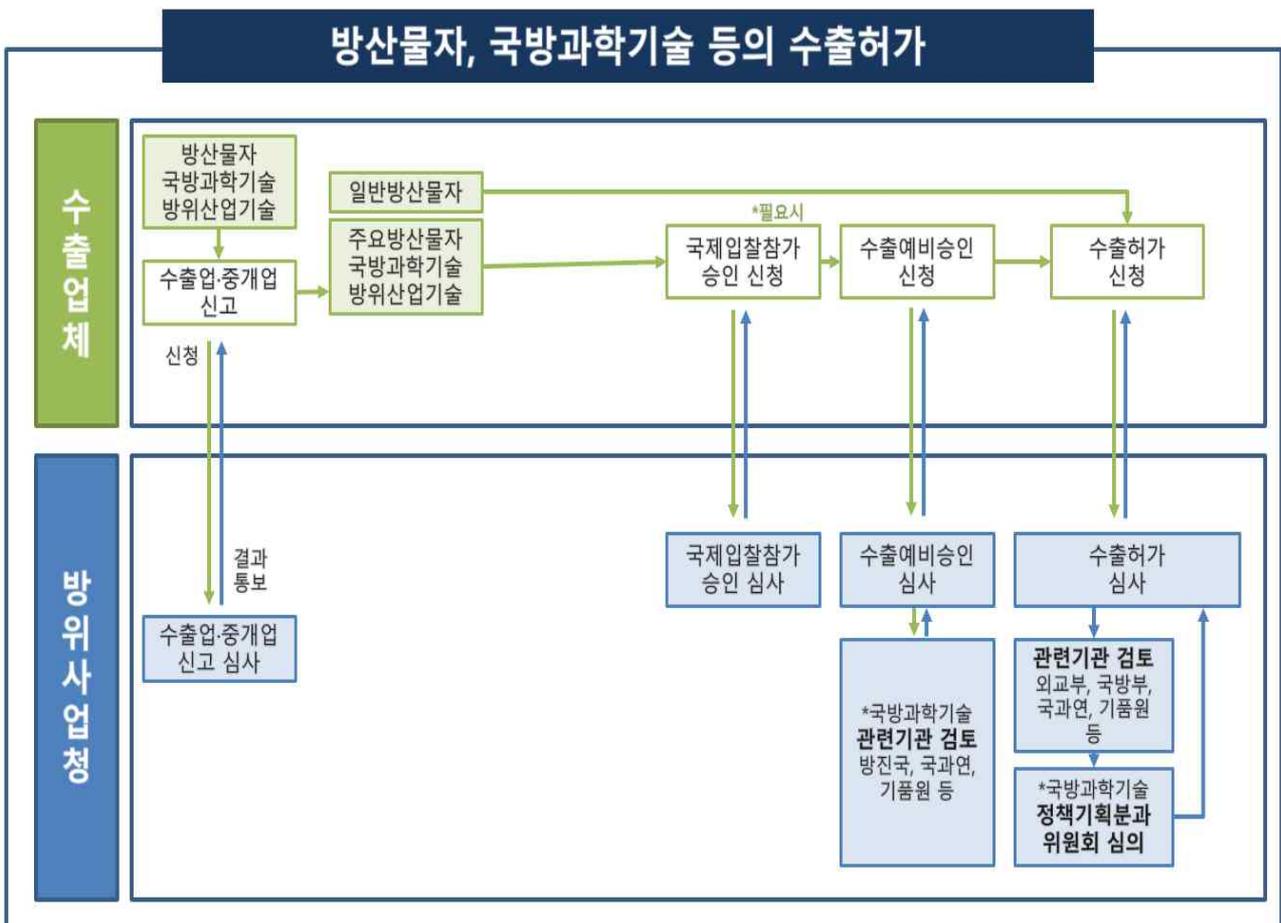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 등 최종사용자 증명서 수출 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최종 수하인 진술서 최종 사용자의 영업여부 확인 가능한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보유 기관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서 외국정부의 허가 필요시 해당 국가의 허가서 수출 시 국내외 파급효과 및 납품일정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 수출업·중개업 신고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 중개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국제입찰참가 승인 신청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예비승인 신청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수출허가 신청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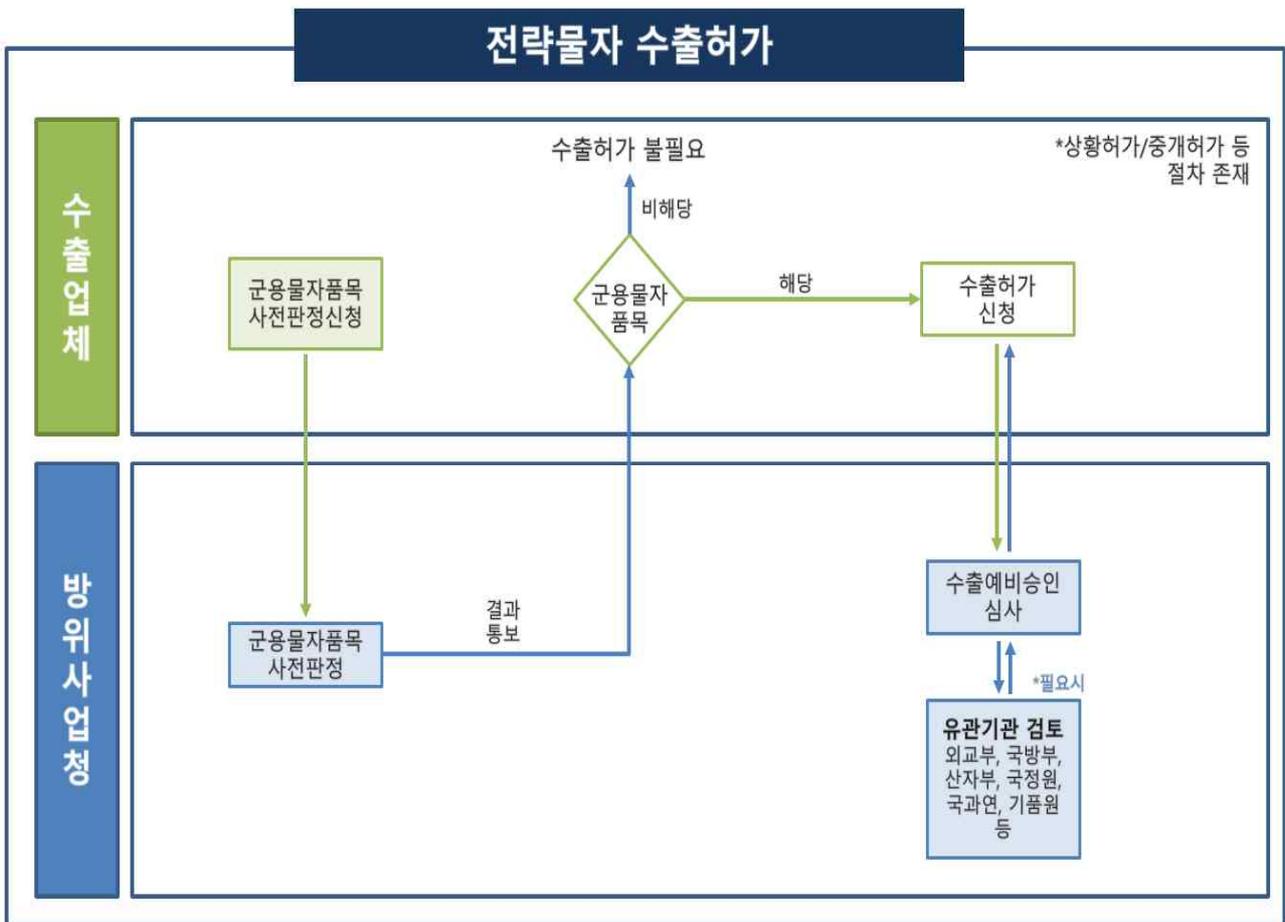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수기 접수 등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http://www.d4b.go.kr> 에서 신청 가능)



[그림 6]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상세 절차 및 수행 기관

-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의 경우 전략물자 대상여부 및 전략물자 대상 품목 확인을 선행해야 함
 - 수출하려는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 또는 군용물자 대상품목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확인 가능
 - 자가판정은 2020.6.19.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판정을 할 수 있음
 - 전략물자 대상여부 자가판정은 품목에 따라 신청처가 아래와 같이 달라짐
 - 군용물자품목(ML1~ML21) 자가판정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www.d4b.go.kr에서 신청
 -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이용



[그림 기]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이란 국방조달시장 진출가이드북
Iranian Defense Market Entry Guidebook

최초 발행 : 2017. 11.

개정 1판 발행 : 2020. 1.

개정 2판 발행 : 2020. 10.

작성			
성명	분야	전화번호	E-mail
박기범	해외시장 조사·분석	055-751-5797	gibeompark@dtaq.re.kr
참여전문가		(가나다순)	
검토 및 자문			
확인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장 수출지원1팀장	책임연구원 한승재 선임연구원 원준호	

